

# 광주·전남 8월 주식거래액 급감

### 6조 5316억원, 전월비 23% 감소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영향 상장사 시총 한전 빼면 대부분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투자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게 한국거래소 분석이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8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액은 6조 5316억원으로 전월(8조 5000억원) 대비 23.15%나 감소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역투자자들의 매수·매도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했는데, 코스피 거래액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전남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2조 65억원으로 전월(2조 6911억원) 대비 25.44% 감소했다. 매도거래대금은 1조 9006억원으로 전월(2조 6853억원)보다 29.22%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거래대금이 1조 3264억원으로 전월(1조 5584억원)에 견줘 14.89% 줄었고, 매도거래대금은 17.06% 감소한 1조 2979억원을 기록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식 거래를 줄인 것은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직전 마감일보다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낙폭을 갱신했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급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도 대폭 감소했다.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69%로 전월(0.80%) 대비 0.11%포인트 줄었고, 매도거

래대금 비중은 0.66%로 전월(0.80%)보다 0.1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기업 경기 역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전월보다 1조 486억원(5.45%) 증가한 20조 291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가총액 증가분 중 한전이 하반기 중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1조 2518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2032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상장법인 가운데 시가총액이 오른 곳은 한전(1조 2518억원 ↑), 한전KPS(1035억원 ↑) 등 전력계열 공기업 등이다. 금호타이어(-1378억원), 강동씨앤엘(-368억원), 박셀바이오(-250억원), 다스코(-178억원) 등 대부분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은 삼성전자(매수2422억원·매도1636억원)였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국내 첫 홍콩행 전세선 크루즈 뜬다

### 롯데관광개발 상품 출시

### 4국 순항... 내년 1월 6일 출항

국내 첫 홍콩행 전세선 크루즈가 내년 1월 6일 출항한다.

롯데관광개발은 국내 최초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홍콩으로 떠나는 '아시아 4개국 크루즈'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인천에서 출발해 홍콩을 방문하는 10박 11일의 장거리 크루즈 상품으로, 내년 1월 6일 인천 출발 뒤 오키나와, 이시카기 등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를 거쳐 홍콩에서 1박 2일 머물고 대만 기항을 거쳐 16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국내 크루즈가 홍콩에 기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1박 2일 '오버나이트'를 진행한다.

크루즈 여행에서 '오버나이트'란 방문지에 크루즈 선박이 1박을 체류하며 이를 동안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겨울인 1월에 크루즈가 출항하는 것도 처음이

라 따뜻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항지로 노선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홍콩을 비롯해 오키나와, 이시카기, 대만 기항의 평균기온은 약 22도로 여행에 최적화된 날씨를 자랑한다.

대만 기항은 대만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타이베이에 근처에 있어 타이베이 시내까지 관광이 가능하다. 일본 오키나와, 이시카기 등 일본 천혜의 자연을 품은 섬들로 다양한 해양생물 관광 뿐 아니라 쇼핑도 즐길 수 있다.

'아시아 4개국 크루즈' 가격은 내측 클래식 선실 기준 289만원부터이며 9월 30일까지 완납 시 1인 4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방 고령 편의를 위해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까지 무료버스도 제공한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추운 겨울,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하며 아시아 4개국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롯데관광개발은 13년 전통의 크루즈 운영 노하우로 앞으로도 새로운 노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역 대형마트 올 추석 선물세트 키워드는 실속과 실용

### 내일부터 판매... '가성비' 중점 사전예약 등 할인 혜택도 다양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대형마트들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 경쟁이 시작됐다.

고물가 속 지역민들의 장바구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성비', '조저가' 상품 위주로 선물세트를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하는데, 가성비 높은 분판매 전용 선물세트, 가격 동결 선물세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과 선물세트는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보다 평균 10%가량 낮췄다. 가장 저렴한 사과 선물세트는 당도 선별 사과(3.7kg·14입)로 3만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축산 선물세트로는 10만원대 초반 가격의 분판매 전용 한우 선물세트를 20% 할인 혜택을 더해 구입할 수 있고 수산 선물세트는 전품목에 대해 사전예약 혜택을 분판매에서도 유지한다.

롯데마트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선물



5일 롯데마트 과일 선물세트 매대에서 고객이 추석 선물을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세트 분판매를 진행하며, 1만원대 내의 초저가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대표상품으로 '비비고 토종김 5호'와 '양반 들기름김세트(72g)' 등을 1만원대에 판매하며, 오는 12일부터 추추사과(3kg)과 나주배(3kg) 등 과일

선물세트도 1만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올 추석 선물세트 키워드는 '실속'과 '실용'이다. 상품군과 무관하게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LS증권,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 유리버스와 토큰증권 사업 MOU

### 플랫폼, FI 투자 사업 등 협력

LS증권과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인 유리버스와 토큰증권 사업 MOU를 최근 체결했다.

5일 LS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LS증권 본사에서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윤지호 전무와 유리버스 광범희 대표, 광준혁 수석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큰증권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유리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IT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서울대 등 석학으로 구성되어 블록체인, AI, SNS 등 기반 기술을 보유 중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FI 투자,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 이후,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참여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에 나서고 있다.

유리버스 광범희 대표는 "LS증권의 금융 노하우, 인프라에 유리버스의 기술력을 더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많은 투자자에게 토큰증권 기반의 새로운 경험과 혜택을 선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 윤지호 전무는 "유

리버스 팀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술력을 접목해, 온라인 증권사로서 혁신적인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신세계 MD 개편... 10여개 브랜드 오픈

광주신세계가 대대적인 상품기획자(MD) 개편을 통해 스포츠, 영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5일 "MD개편을 통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신관 소재 브랜드 10여개가 신규 오픈 및 리뉴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는 '더영스타', '스타일노리더', '세이브 힐즈' <사진>, '헌터' 등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다.

더영스타와 스타일노리더는 16세 이하 주니어를 위한 의류 브랜드로, 다채로운 컬러와 디자인을 통한 트렌디한 아동 스타일의 제품을 판매한다.

세이브 힐즈는 다양한 브랜드의 신발제품을 취급

하는 편집매장으로 '블러드 스톤', '네이티브', '피카딜리', '아치스' 등 10개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세이브 힐즈에 지역 최초로 입점한 '르무통'은 수도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로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더불어 광주신세계 본관에 있던 헌터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신관으로 이전, 재오픈하면서 의류와 가방 등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부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점장은 "신관 지하 1층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영패션과 스포츠 브랜드 전문 매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트렌드에 발맞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새롭고 다양



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기업 4곳 중 3곳 "추석 연휴 5일 모두 쉬다"

### 상여금 지급 기업 지난해보다 줄어

기업 4곳 중 3곳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전체를 휴무일로 지정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28일 '2024년 추석 휴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5.9%가 휴무를 시행하며 이 가운데 74.6%가 5일간 휴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4일 이하(9.3%), 3일 이하(7.3%)의 휴무일을 둔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들 기업은 연휴 중 근무일을 운영하는 이유로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으로 근무가 불가피해서'(4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휴에 휴무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6일 이상 휴

무한다는 기업은 8.8%였다.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64.8%)가 주된 사유였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 비중은 64.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줄었다.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비율이 높았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줄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 비율은 지난해(73.9%)보다 늘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작년(65.2%)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남도장터 추석 선물 '상생 기획전' 주문 쇄도

### 최대 40% 할인 소비자 인기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상생기획전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추석 선물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의 상생기획전은 남도장터 쇼핑몰에 전남지역 지자체별 농·수·축산물 전용관 코너를 마련해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는 11개 시·군이 참여했다.

시·군이 각각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남도장터 제공 할인혜택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들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강진 쌀 '프리미엄 호명'의 경우 19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기념 '강진 쌀

20% 할인 기획전('8월 15일~9월 말)' 기간 쌀 63t(2억원)이 팔렸고 '강진 반값소평 기획전'은 개장 첫날에만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완판됐다.

장성군 '찾아가는 생생라이브-옐로우 시티를 가다! 기획전' 도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매진돼 조기 마감됐다. 남도장터는 현재 목포(김치, 홍어), 순천(농물지, 녹차), 광양(매실 가공품), 구례(쌀, 산수유 가공품), 보성(차, 쌀)과도 상생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수(돌산갓, 해풍송), 함평(한우, 쌀·잡곡), 화순(미니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진도(미역, 울금, 쌀), 영가(생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도장터 관계자는 "남도장터 인지도와 인프라를 활용, 농·수·축산물 판로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더본코리아 상장 절차 돌입

### "11월 코스피 입성 목표"

더본코리아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 3000~2만 8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3327억~40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원 대표 지분율은 76.69%(879만 2850주)로, 공모 이후에는 60.78%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5.50 (-5.30)
↓ 코스닥	725.28 (-6.47)
↓ 금리(국고채 3년)	2.905 (-0.026)
↓ 환율(USD)	1336.60 (-5.60)